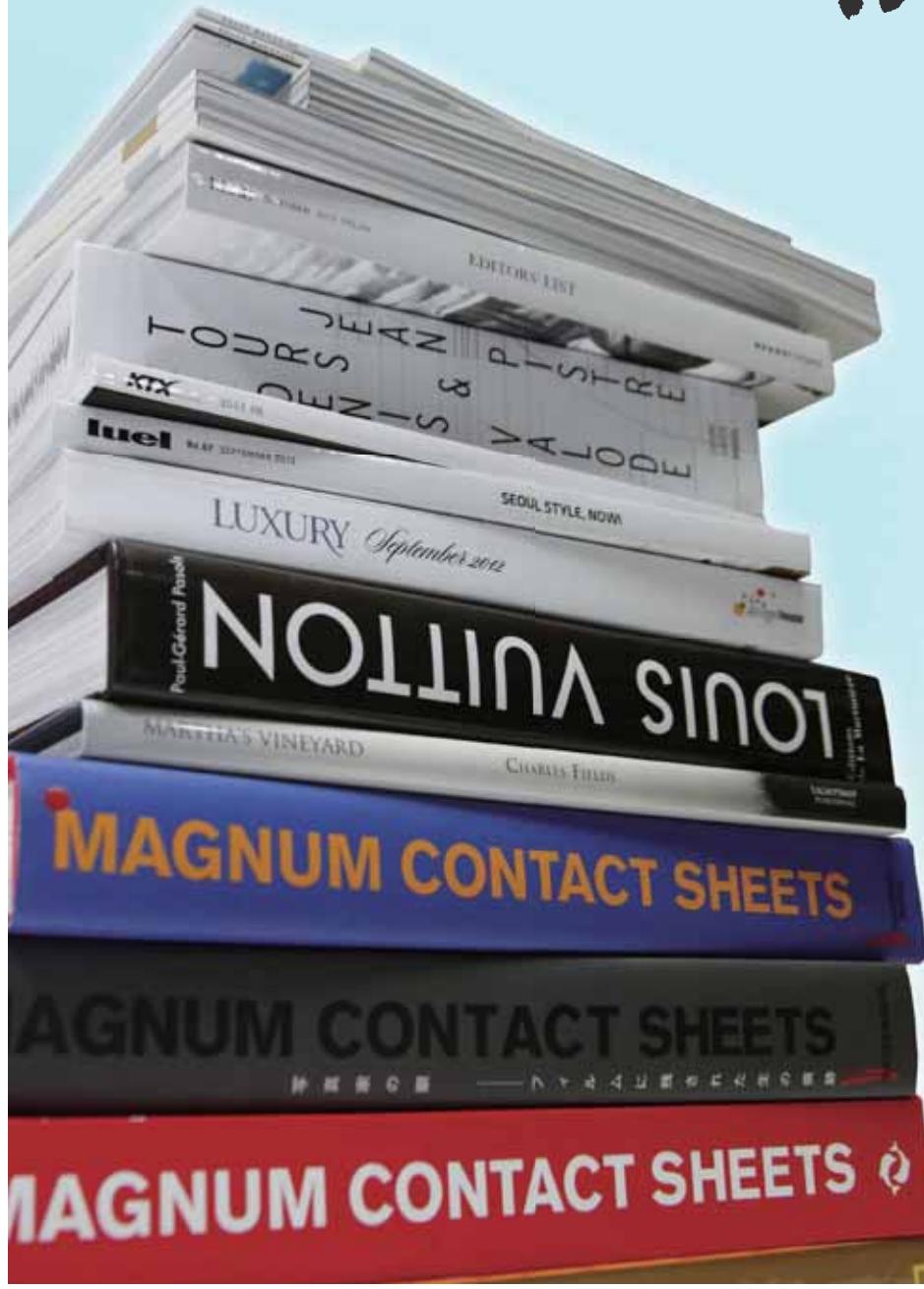


2016 1월~3월 vol.12
Pamiry

새해를 시작하기에 완벽한 그 곳, 통영 연화도
덕담릴레이
꽃보다 북메이크



고객의
꿈이
만들면
명품이다



고객의 꿈을 인쇄하는
대한민국 인쇄 1위 팩컴코리아

팩컴은 품질, 가격, 납기 만족을 넘어
고객의 생각과 꿈을 인쇄하여
고객의 가치를 최상으로 구현한다는
고객 가치 경영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Pacom

Pacom AAP

MIRAEING

Pacom Books

BOOK JIHYERO

Book Mate

BOOK MATE



vol.12
2016 Jan. Feb. Mar.

CONTENTS

Pamily
Pacom Family

- | | | |
|----|--------|--|
| 02 | 신년사 | 김경수 대표이사님, 최숙 대표님, 김홍규 상무님, 조성길 상무님 |
| 04 | 덕담릴레이 | 덕담릴레이 |
| 06 | 이슈 | 2016 병신년 이슈 |
| 08 | 요건몰랐지? | 생활의 지혜 |
| 08 | 이모저모 | 2016 세계 인쇄 회의 |
| 09 | 새해인사 | 아듀2015년 |
| 12 | 부서소개 | 꽃보다 북메이크 |
| 13 | 맛집소개 | 찾아라! 맛있는팩컴 |
| 14 | 힐링로드 | 새해를 시작하기에 완벽한 그 곳, 통영 연화도 |
| 16 | 독서평 | 스쿨아홉 생일, 1년 후 죽기로 결심했다 |
| 17 | 죽제소개 | 겨울죽제소개 |
| 18 | 현장체험 |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의 시인, 윤동주 문학관 |
| 19 | 영화평 | her |
| 20 | 찰칵소리 | |
| 20 | 팩컴뉴스 | |
| 21 | 공감 | 연탄 한 장 / 안도현 |

* Pamily (Pacom Family)는 팩컴코리아에서 기획, 디자인, 인쇄한 사보입니다.

김경수 대표이사 신년사



지혜로운 [잔나비]를 상징동물로 하는 병신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잔나비의 [잔]은 잽싼 원숭이의 모습을 형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올해 병신년을 붉은 원숭이의 해라고 부르더군요. 병신의 [병]이 붉다는 뜻이고 [신]은 원숭이를 뜻하니, 합해서 붉은 원숭이의 해라고 합니다. 색을 제품으로 생산하는 업에 있어서인지 어느 해부터인가 따동물에 색이 있다는 것을 알고 새롭게 깨달은 적이 있었는데 (작년은 [푸른 양]의 해였지요), 붉은색이 올해의 색이라니 어쩐지 흥분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군요.

“붉은 원숭이”… <서유기>속의 주인공 손오공이 천방지축 망나니에서 부처가 되었던 것처럼, 뭔가 기상천외한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꿈을 꾸게 하는 그런 새해입니다. 워낙 답답하고 꽉 막한 것 같은 (양처럼) 한해를 지내고 나니, 근두운을 타고 여의봉을 휘두르며 온갖 도술을 부리지만 결국 삼장법사를 도와 서천에서 불법을 구하는 데에 탁월한 공로를 세워 석가여래로부터 부처로 임명되는 손오공처럼, 올해는 뭔가 화끈한 일을 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은 모두가 한 번쯤은 가슴에 품어본 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손오공처럼 변화무쌍한 행동을 통해 궁극적인 무언가를 이루는 해로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양력을 쓰기 시작한 것은 꼭 120년 전인 1896년 병신년(丙申年)부터라고 합니다. 1872년에 음력을 폐지하고 양력을 채용한 일본보다는 24년 늦었다고 합니다. 고종이 조선조 504년 동안 사용해왔던 음력을 폐하고 양력사용의 조치를 공표한 것은, 당시 조선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뒤늦게나마 깨닫고 근본적인 변신을 꾀하려 취한 조치였을 것이라 추측해 봅니다. 당시의 조선은 자기만의 꽉 막힌 세계관에 갇혀 있다가 세상 돌아가는 사태를 뒤늦게나마 깨닫고 변신을 모색한 것입니다. 다만 그 때는 이미 일본 제국주의에 국권을 거의 잃은 상태로 접어들어 스스로 개혁하기에는 너무 늦은 상태였고, 결국 십년도 못되어 자주권을 잃고 곧이어 나라마저 송두리째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 뒤늦은 변신은 1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치욕의 역사를 반복적으로 느끼고 살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가 생각하게 합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는 언제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치게 해주지요. 동양적 세계관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중용]의 개념도 “時中, 즉 때에 맞는” 이란 뜻이 있다고 하니 개혁이나 혁신 같은 것도 늦기 전에, 필요한 때에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손오공은 참 자존심이 강했던 원숭이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능력도 탁월했고요. 머리가 아주 팡팡 잘 돌아가지만 그렇다고 사색형은 아니고 매우 적극적인 행동형이었습니다. 만약 손오공이 능력 있는 사유형이었다면 삼장법사를 도울 일도 없었을 것이고, 부처가 되지도 못했을 겁니다. 저는 지난 결산대회에서 [혁신]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혁신에 대해 말을 해서, 혁신에 대한 개념을 찾자면 그 의미가 너무 많아 아마 오히려 혼돈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훌륭한 개념들은 한마디로 자기의 가죽을 벗는 것 같은 고통이 수반되는 지극히 적극적인 [행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혁신의 성패는 5%의 분석과 95%의 바른 실행”이라고 하는데, 이 정의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5%의 분석이 덜 중요 한 것이 아니라 실행이 19배만큼 더 중요하다는 의미로…

혁신은 자기변화입니다. 조선왕조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세계정세에 대한 분석도 부족했지만, 스스로를 변화시키려는 적극적 혁신의지와 실천하는 주체세력이 없었기 때문이며, 스스로의 초라한 현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가죽을 벗길 만큼 강한 의지도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모든 혁신의 주체는, 그것이 개인이든 국가나 조직이든 자기 스스로에게, 또는 속해있는 조직에 대한 애정을 가짐과 동시에, 자기 일을 좋아하며 그 일을 일로서가 아닌 삶 그 자체라고 인식하는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혁신의 문화를 만들고, 창조의 에너지를 만들어 낸다.

팩컴가족 여러분, 우리 붉은 원숭이 손오공처럼 뭔가 한 번 화끈하게 보여주는 한 해를 만들어 볼까요? 너무 늦지 않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최숙 대표님 신년사



새해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한해의 시간이 뭉텅이로 오면 잘 사용하지 못할까봐...

12달로 나누어, 그것도 각각의 달마다 30일 내지 31일로 주어집니다.

우리가 그 하루하루를 잘, 열심히 사용하다 보면 한 달의 만족감, 분기의 만족감, 한해의 만족감을 느끼며 살아갈 것 입니다.

그렇다면 주어진 한해를 잘 보내려면 우린 무엇을 해야 할까요?

크게 한 해의 목표를, 분기의 목표를, 한 달의 목표를, 주일의 목표를 만들어 하루하루를 잘 보내야 할 것 입니다.

을 한해는 무엇을 계획 하셨는지요.

어영부영 거리다 보면 한해가 또 갑니다.

우리 각각의 인생 목표를 정해 내 눈 앞에 항상 보이는 곳에 놓아두고 하나씩 실천해 봐야하지 않을까요?

병신년 한해, 우리 모두에게 만족스러울만한 시간의 연속이길 기대해 봅니다.

김홍규 상무님 신년사



병신년 빨간 원숭이띠 해를 맞이하여, 팩컴의 모든 임직원들이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는 우리 인쇄업계뿐만 아니라 산업전반에 걸친 불황의 여파로 모두가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 하였던 한 해였던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내외의 여러 정황을 볼 때 병신년 새해에도 경기가 좋아지거나 인쇄업계의 경영 환경이 호전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난 11월 27일 1,000명의 지식인들은 “백척간두(百尺竿頭)” “미증유(未曾有)”처럼 위기를 표현하는 가장 높은 단계의 언어를 동원해 현재의 경제 실정을 질타하고 대책을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2016년은 그 어느 때 보다도 비장한 각오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과거에만 연연할 것이 아니라 그 변화의 흐름에 맞춰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사고의 전환이 어느 때 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변화는 언제나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생존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팩컴의 미래를 어떻게 열어 가느냐는 우리 임직원들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이는 바로 우리 팩컴의 주인은 우리 임직원들이며 우리 회사를 발전시키는 것은 바로 우리 팩컴 임직원들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사장님께서 강조하시는 “집보다 더 행복한 회사” 또한 우리 팩컴 임직원들의 마음과 노력에 달려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병신년 새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는 한 해가 되어 임직원 모두 행복해 질 수 있는 2016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조성길 상무님 신년사



또 한해가 저물고 새로운 한해가 시작된다.

변한건 달력뿐이지만 우리네들은 모두 지나간 한해를 되돌아 보고 새로이 마음을 다잡고 희망차게 계획을 세우곤 한다.

나 역시 개인적으로나 회사의 일원으로서나 각오를 다진다.

올해는 꼭 목표를 달성하고 우리의 비전을 향해 굳건히 나가겠다고.

그리기 위해서 우선 임원의 한 사람으로 세 가지 위기의 리더십을 발휘해야겠다.

첫째는 소통과 배려를 확실하게 하자.

어렵고 힘들수록 직원 상하간, 조직내 부서간 소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배려하고 우리의 현실과 상황, 목표와 전략, 실행 및 해결방안 등을 허심탄회하게 그때그때 알려주고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자.

두 번째는 긍정 바이러스를 전파하자.

우리는 반드시 목표를 달성하고 생존은 물론 계속기업으로서 성장해 나갈 것이라는 믿음과 비전을 제시하고 동기를 부여하고 솔선수범하여 앞장서 나가자.

세 번째는 발상의 전환을 하자.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관행, 루틴한 업무행태에서 과감히 탈피해보자. 영업 패러다임을 바꾸고 생산현장의 문화도 좀 과학적, 시스템적, 창의적으로 스마트하게 해보자.

이러한 세 가지 방향을 기조로 사장님과 대표님을 잘 보필하고, 내게 주어진 권한 내에서 맡은바 역할을 충실히 한 후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한해를 보내자.

그리고 우리 직원들과 같이 풀어가야 할 과제를 다시 한번 상기해본다.

첫째, 영업활동 강화로 매출목표 달성.

둘째, 원가절감과 cost down.

셋째, 효율성 제고와 생산성 향상.

넷째, 품질향상과 사고근절.

이렇게 2016년 丙申年 새해 신년사를 나의 각오로 대신해본다.

직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2015년 元旦

상무이사 趙誠吉

덕담 릴레이



새해를 맞이해서 팩컴 가족 분들과 서로 덕담 한 마디씩 나누는 훈훈한 시간을 가져 보았습니다. 이름하여 덕담 릴레이~! 사실 덕담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코너에서만큼은, 그저 모두 함께 긍정적인 말과 기운을 나누자는 좋은 의도로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이 덕담 릴레이는 말 그대로 팩컴 가족 한 분을 골라 평소 하고 싶었던 말과 새해 덕담을 한 마디 (혹은 두 마디) 하고, 지목된 사람은 또 다시 다음 주자를 골라 덕담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 첫 주자는 바로 저 이연지입니다. 그럼, 바로 숨가쁘게 달려볼까요?

이연지▶

해외영업부 창조팀 민상준 과장님

“항상 모르는 것은 조곤조곤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팀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주시는 과장님,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건강이 최고잖아요. 얼마 전에 다친 하리 깨끗이 나오시고 새해에는 더 건강하세요!”



민상준 과장님▶ 해외영업부 창조팀 홍석준 과장님

“내 친구 홍과장, 내년에는 꼭 장가 갑시다. 새해 복 많이 받아요!”



홍석준 과장님▶ 해외영업부 도전팀 김진아 과장님

“진아 과장, 내년엔 꼭 좋은 사람 만나고, 생각하고 있는 일 모두 이루길 바랍니다.”



김진아 과장님▶ 수암공장 김효정 사원

“눈이 너무 예쁜 효정님! 수암동에 그대가 있어서, 그대와 함께 여러 PROJECT들을 헤쳐 나갈 수 있어서, 이 어린 마음 투정도 받아주고, 늘 따뜻하게 이야기 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같이 걸어 줄 누군가가 있다는 것, 그것처럼 우리 삶에 따스한 것 이 없다는데... 함께 해주어서 따뜻했습니다. 고마웠어요! 그리고 잘할게요! 2016년도 잘 부탁해요! 언제나 평안하기를!”



주선영 사원▶ 해외영업부 창조팀 이운정 사원

“새해 복 많이 받아~ 2015년에 새 출발(결혼)로 행복한 한 해 보냈으니, 올해는 예쁜 아기 소식 들려줘요. 항상 건강하고 다시 한 번 복 많이 많이 받아요!”



김인선 대리님▶ 해외영업부 혁신팀 주선영 사원

“올 한 해 현풍이 돌보느라 아주 개(?) 고생했어~ㅎㅎ 덕분에 똥꼬발랄해진 현풍인 지금 너무나도 건강해 보여. 내년에는 본인의 행복이 두 배로 더 커지는 한 해가 되길 바래요~^^”



이연지▶ 생산관리부 김인선 대리님

(저한테 다시 돌아올 줄이야...! 팩컴 분위기 너무 훈훈한 것 아닙니까. 하하하. 그런 의미에서 저는 특별히 2번 하겠습니다.)

“대리님,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고 항상 감사해요! 예쁜 아기 건강하게 낳으시고 가족이 느는 만큼 새해에는 더욱 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안산공장 김효정 사원▶ 창조팀 이연지

“연지씨! 새해 복 많이 받아요. 2016년에는 우리 더 친해지도록 해요!”



이운정 사원▶ 제본사업본부 정합팀

정순이 여사님

“여사님, 2016년에도 지금처럼 건강하시고, 부~~~우자 되세요!”



정순이 여사님▶ 제본사업본부 양장팀 이채영 사원님

“건강이 첫째니까 새해에는 첫째로 건강하고, 복도 많이 받고, 돈도 많이 벌어요. 무엇보다도 다음 해 넘기지 말고, 꼭 국수 먹여줘!”



마지막 주자는 제본사업본부 이채영 사원님이 되셨네요! 여기저기 좋은 짜를 만나라는 이야기가 눈에 많이 띕니다. 릴레이로 진행된 만큼 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실어드리지 못한 점이 아쉽지만, 이번 취재를 통해 우리 팩컴 가족 분들의 서로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16년 새해 더욱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모든 팩컴 가족 여러분께, 진부하지만 진심으로 한 마디 드리며 마무리 하려 합니다. “2015년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오는 2016년 새해 모두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지목 받으신 여러분, 이제는 주위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덕담 한 마디 건네실 차례입니다! 이연지



Happy
New Year
♥ 2016



2016년 병신년(丙申年)이슈

다가오는 붉은 원숭이의 해,
병신년 새해에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양한 이슈를 알아보았습니다.



2016년 병신년(丙申年) 붉은 원숭이의 해

인간과 가장 닮은 원숭이는 재주와 영리함, 변화, 수호신의 상징이지만 잔꾀, 성급, 미숙함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붉은 원숭이띠의 성격은 지혜롭고 다재다능한 솜씨가 있고 모방의 재주가 뛰어나며 타인의 시선을 모으는 능력이 있지만, 이상이 높아 무모한 도전을 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한 실패로 우울증이 생길 염려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붉은 원숭이띠를 좋아하지 않지만, 중국에서는 굉장히 선호하는 띠라고 합니다.

병신년 유명인 : 손석희, 노회찬, 박원순, 투행크스, 멜깁슨 등등

4월 13일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대한민국 제 20대 총선은 대한민국에서 2016년 5월 30일부터 4년 임기의 제 20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입니다. 선거는 2016년 4월 13일(공휴일)에 치러집니다.
1997년 4월 14일 이전에 생일을 맞은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선거권이 있습니다.

제 31회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2016년 하계 올림픽 개최지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가 선정됐습니다.

리우데자네이루는 IOC 출범 122년 만에 최초로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올림픽을 개최하는 도시가 됐습니다.

기간 : 2016년 8월 5일(금) ~ 21일(일)

종목 : 수영, 사이클, 카누/카약, 체조, 배구, 승마, 레슬링, 근대 5종, 농구, 배드민턴, 복싱, 사격, 양궁, 역도, 요트, 유도, 육상, 조정, 축구, 탁구, 태권도, 테니스, 트라이애슬론, 펜싱, 필드하키, 핸드볼, 골프, 럭비

지하철 개통

1월 30일 - 신분당선 정자역에서 광교역 구간이 개통될 예정입니다.

2월 27일 - 수인선이 송도역에서 인천역까지 연장될 예정입니다.

4월 - 중부내륙선 판교역에서 여주역 구간이 개통될 예정입니다.

7월 - 인천 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수도권 고속철도가 개통될 예정입니다.

12월 - 수도권 전철 경의, 중앙선 전철 용문역에서 지평역 연장 구간이 개통될 예정입니다.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2016년 11월 8일 화요일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열립니다. 우리나라의 선거는 아니지만, 누가 대통령직에 선출되는지에 따라 우리나라도 무시하지 못할 영향을 받으니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버락 오바마는 2012년 선거에서 이미 재선하였기 때문에 이 선거부터 더 이상 출마가 불가능 합니다. 박미선

요건 몰랐지?



다 쓴 포스트잇은 버리기 전에 접착 부분을 키보드 청소에 쓰면 좋아요.



피자를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을 때 물 한잔이랑 같이 돌리면 부드러워져요.



빵 포장의 그 물건을 테이프 끝에 붙여두면 다음에 쓸 때 끝이 어딘지 헤매지 않아도 돼요.



캔에 뱀대를 꽂으면 떠올라서 불편하죠? 캔뚜껑 구멍에 통과 시켜 넣으면 해결!



건전지를 바닥 15센치 위에서 떨어뜨려서 한 번 약간 훑기면 남은 상태이고, 좀 많이 훑기거나 두 번 이상 훑기면 쓸 수 없는 건전지에요.



자동차 헤드라이터가 뿌옇게 되었을 땐 치약으로 문지르면 깔끔해져요.



호두를 상처난 나무 가구에 문지르면 깔끔해져요.



코르크마개 병따개가 없으 땐 나사를 박은 후 못 빼듯 빼면 돼요.



막혀서 움직이지 않는 지퍼 이빨을 연필로 문질러주면 고쳐져요.



이어폰 선 정리는 헤어클립으로!



빵 포장에 쓰이는 이 물건에 이름을 쓰고 전선에 끼우면 어떤 선인지 한 눈에 구분할 수 있어요.



막대 아이스크림 먹을 때 사진처럼 하면 녹아내릴 걱정이 없어요.



계란 삶을 때 베이킹파우더를 1티스푼 넣으면 껍질이 쉽게 까져요.



작은 걸 잊어버려서 찾기 힘들 때 진공청소기 입구에 스타킹을 묶어 두고 흡입하면 쉽게 찾아요.



아이스 커피 혹은 아이스 카푸치노를 마실 때, 얼음 대신에 커피 얼린 것을 넣어보세요. 커피가 얼어지지 않아요.



박스에 각종 케이블이나 선, 코드 등을 정리할 땐 휴지 다쓰고 남은 휴지심으로 정리해주세요.



클립을 이용하면 각종 선이나 케이블 정리가 수월해져요.



젖은 휴지를 병에 감싸서 얼리면 15분 만에 급속도로 냉각 돼요!



양동이가 세면대에 들어가지 않을 땐 이 방법으로 물을 채워보세요.



해외여행갈 때 수화물에 손수건을 묶어두면 다른 수화물이랑 헷갈리지 않게 찾을 수 있어요.

2016 세계 인쇄 회의 한국 개최

2016년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한국에서
세계 인쇄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인쇄 회의(WPCF; World Print & Communication Forum)란?

1989년부터 개최된 세계 인쇄 회의는 전 세계 인쇄미디어 산업 및 관련 산업 대표자들이 모여 세계 인쇄 산업의 현황과 미래 비전에 대해 논의하고 발전방향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는 국제모임으로서 전 세계 50여 개 국가 가입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한인쇄문화협회가 지난 2003년에 정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2016년 세계인쇄회의 한국 유치

지난 2013년 네덜란드에서 개최된 세계인쇄회의 총회 및 유럽인쇄연합회(INTERGRAF)와의 공동포럼에 참여한 한국 대표단들은 행사 내내 우리나라 인쇄 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2016년 세계인쇄회의의 한국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2016년 세계인쇄회의 유치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개최 신청국들 중 같은 해 올림픽을 개최하여 유력한 후보로 여겨지던 브라질과의 경합 끝에 결정됐습니다. 특히 한국 대표단은 인쇄 문화종주국으로서의 위상과 역사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우리나라 인쇄문화산업의 우수성에 대해 진심 어린 연설을 전달함으로써 참석자들의 지지를 이끌어 냈습니다. 2016년 6월 독일에서 개최되는 드루파(Drupa; 전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인쇄 전시회)로 인해 유럽대륙이 아닌 아시아 지역에서 개최되는 것에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는데, 한국 대표단은 세계인쇄회의를 9월에 개최할 계획이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인쇄문화산업진흥 5개년 계획 중 마지막 연도인 2016년을 ‘인쇄의 해’로 선포하고, 국제산업전시회와 국제포럼을 포함한 세계인쇄회의를 공동 개최함으로써, 2016년을 인쇄 산업 축제의 한마당으로 채울 계획이라고 강력히 어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제인쇄산업전시회와 국제 포럼 등의 개최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도 널리 홍보하였고, 정부(문화체육관광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각국 대표단의 방문에도 많은 혜택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참가국 대표들의 관심이 급격히 한국에 쓸렸으며, 우리나라의 역량과 의지가 매우 높아 충분히 자격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일본 대표의 지원 사격에 힘입어 2016년 세계인쇄회의는 한국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5년 세계 인쇄 회의 이모저모

2015년 세계 인쇄 회의는 포르투갈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브라질, 인도 및 유럽인쇄연합회 등 각국 대표단과 포르투갈 참가단을 포함한 총 4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행사는 참가국 대표들을 환영하는 웰컴파티, WPCF 이사회, ‘Print matters for the Future(미래를 위한 인쇄)’라는 주제의 컨퍼런스, 환송만찬, 시내관광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한국 대표단은 ‘2016년 세계인쇄회의 한국 개최 소개’라는 주제의 한 세션을 배정받아 우리나라 인쇄산업과 2016년도 세계인쇄회의 개최 계획에 대한 영상자료와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함으로써 참석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대표단은 2016년 서울에서 개최될 세계인쇄회의에 대해 참석하는 모든 나라 대표들에게 가능한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수준 높은 컨퍼런스를 준비할 것이며, 같은 기간에 국제 인쇄 기자재 전시회인 K-Print Week도 함께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현존 세계 최고 금속활자본인 ‘직지’를 배출한 나라이며, 세계 최고 수준의 인쇄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IT 산업 강국으로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화하는 인쇄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 부응하며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명성에 걸맞게 2016년 세계인쇄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인쇄 회의 마지막 날, 모든 컨퍼런스 일정이 종료 된 후 마지막 행선지로 참석자 전원이 포르투갈 국립 인쇄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박물관에는 구텐베르그 시절부터 근대에 이르는 고인쇄기기가 전시돼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전시관 중앙에 한국관이 조성돼 있어 각국 대표단들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특히 한국관에는 유네스코 기록유산이자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인쇄물인 ‘직지’ 영인본과 팔만대장경 목판(복제), 월인천강지곡 금속활판(복제) 등을 전시하고 있어 참가자 모두 우리나라 인쇄 문화의 가치와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는 뜻 깊은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박미선



아듀 2015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도약의 해 2016년을 준비 하는 팩컴 그룹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직원들의 새해 인사말을 받아보았다.
요즘은 SNS시대인 만큼, 기자는 SNS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아보았다.



물류팀 태동호 과장

안녕하십니까 물류팀 태동호입니다. 2015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이때 바쁜 나날을 보내다 보니 어느새 정년을 맞았네요. 회사 배려로 계속 근무를 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나 자신도 앞으로는 모든 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근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팩컴 가족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리고 팩컴 사보 기자 여러분 파이팅! 사랑합니다.



안산공장 구유순 과장

팩컴 가족 여러분을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궂은일 모두 잊어버리시고 희망의 16년을 깔끔하게 맞이합시다. 무엇보다도 개인적으로 좋은 일들이 많았던 해로 저는 기억이나네요. 희망의 16년도 팩컴 가족, 동료들과 각 가정의 자녀들에게 좋은 일들이 많았음 좋겠고요. 새해에는 작심3일이 되지 말고, 3일에 한번씩 계획을 세운다면 365일중에 150일은 실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족 여러분, 긍정마인드로 행운과 건강이 따르는 16년이 되길 기원합니다.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관리본부 유미애 과장

올 한해 잘 마무리 하시고요, 새해엔 팩컴 그룹 직원 여러분과 가족모두들 뜻하신바 좋은 일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happy new year 예요~~ 2016년 파이팅!



비상팀 김지수 과장

다사다난 했던 2015는 가고 다사유익한 2016을 기대합니다.



인쇄 매업 2호기 윤석도 과장

또 한 해가 갑니다. 기쁘면 기쁜대로 슬프면 슬픈대로 아쉬운 여운만 남기고 한 것은 없는데 훌쩍 떠나 갑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모두 평온하시고 복 받으십시오.



인쇄 매업 8호기 박충용 과장

벌써 乙未(을미)년 청양의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팩컴 가족 여러분, 좋은 마무리 하시고 가정에 화목과 건강과 활력이 넘치는 한 해를 보내시길 ~~~~



제본 무선팀 정대성 과장

팩컴 가족 여러분~(얼~쑤)을 한해 고생들 많았습니다(얼~쑤) 못다 이룬 소원성취(얼~쑤) 신년에 꼭 이루시고(얼~쑤) 팩컴 가족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비나이다. (어~얼~쑤)



창조팀 홍석준 과장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엔 뜻하는 바 이루시길 바랍니다.



관리부 유현애 과장

개인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한 해였지만 내년엔 좋은 날이 될 거라는 희망으로 남은 올해 마무리를 잘 해야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도전팀 오지혁 과장

스스로 잘못했다고 반성을 많이 하는 편인가요? 수고했다고 격려를 많이 하는 편인가요? 한 해가 가는 지금 반성도 필요하지만 스스로에게 올해도 수고했다고 격려하며 마무리하세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새해엔 더 행복하세요.

꽃보다 북메이크

**팩컴의 4층, 어디선가 흘러나오는 라디오 소리를 따라가보면
7명의 꽃 같은 북메이크 직원들을 만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팩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만 궁금해하기도 하는 북메이크 부서를 소개한다.**



북메이크는 여러가지 업무를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는 부서이다.

우선, 북메이크호의 캡틴인 송창건 차장은 전산업무 총괄 및 기획 업무를 맡고 있다. 우리회사의 생산업무와 사무업무에 없어서는 안될 전산을 팩컴의 여건과 사정에 맞게 잘 요리해내는 것이 그의 특기이다. 꼼꼼한 성격 덕분이지, 가정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직원들의 생일과 특별한 날을 잊지 않고 챙겨주는 자상함도 갖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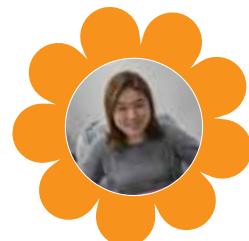
김수희 대리는 회사 대내외의 크고 작은 모든 디자인 업무를 맡고 있는 디자이너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이 사보도 김수희 대리의 편집, 디자인 덕분에 언제나 편하게 읽어 볼 수 있다. 저번 사보에서 소개했듯이, 얼마 전 결혼을 하여 아직 신혼의 깨가 여기저기 묻어있다. 하지만 2015년을 끝으로 퇴사를하게 되어 아쉬움을 숨길 수 없다.



현풍이의 이모 중 하나인 박미선 사원은 팩컴, 북메이크 뿐만 아니라 보그 마스크의 홈페이지등의 웹사이트 관리를 맡고 있는 웹 디자이너이다. 또한 행사가 있을 때면 어디선가 얼굴만한 카메라를 들고 나타나, 직원들의 다양한 활동 모습을 사진으로 담는 사진가이기도 하다. 요즘 한창 미모에 물이 오르고 업무를 열정적으로 하는 것을 보니 제2의 전성기가 찾아오려나 보다.



마주치면 언제나 함박 웃음을 하고 하늘-땅, 위-아래로 인사하는 박효정 사원은 북메이크로 들어오는 책 주문의 제작 진행을 맡고 있다. 6개월 만에 신입의 티를 벗고 벌써 북메이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면 보통은 아닌 것 같다. 항상 “오늘 점심은 뭐지~”하면서 식단 메뉴를 보고, 맘에 드는 메뉴가 있으면 “딱 내 스타일이야!”를 외치는 발랄한 사원이기도 하다.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은 김은영 사원은, 북메이크로 들어오는 주문의 견적을 작성하는 “견적 우먼”이다. 입사 2개월 차 임에도 업무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놓인다. 작은 체구를 하고 큰 견적을 뚝딱뚝딱 내 놓는 것을 보면 잘 적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즘은 얼마 전 북메이크 이벤트로 진행한 무료 카렌다 작업에도 일조한 것으로 알고 있다.



김민우 대리는 팩컴 전산망을 매끄럽게 관리하고, 현장과 사무실을 종횡무진으로 날아다니는 전산 전문가이다. 항상 목장갑을 낀 채 한 손엔 하드웨어, 한 손엔 드라이버를 들고 현장, 사무실과 안산공장을 관리하는 김민우 대리 덕분에 오늘도 컴퓨터로 업무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이렇게 카리스마 넘치는 김대리도 집에서는 자상한 아빠이자 남편이라는 소문이 있다.



지난 호 창조팀에 이어 소개하는 현풍이의 두 번째 삼촌이자 소문난 애처가, 안병욱 사원은 전산의 문제점을 깔끔하게 해결해주는 전산 해결사이다. POP와 MES, KMS를 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산망을 관리하고 있다. 일이 막힐 때, 한번 흡연실에 갔다 오고 나서 일사천리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을 보면 흡연실이 그의 아이디어뱅크인가보다.



여기 이렇게 모인 7명의 자상한 북메이크 직원들은 서로서로 도우며 알콩달콩하게 부서를 꾸리고 있었다.



찾아라! 맛있는 팩컴

열심히 일한 당신, 먹어라! 점심, 저녁 식사 종소리는 언제 들어도 감미로운데요.

그렇지만 가끔씩은 회사를 벗어나 바깥 공기도 마시고, 고생한 나를 위해 보다 특별한 한 끼를 먹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일명 찾아라! 맛있는 팩컴!!!

한 가지 고백하자면 사실 저의 입맛에는 어지간하면 다 맛있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인 맛 평가를 위해 미식가로 소문난 창조팀 성 모 차장님의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제가 직접 발로 뛰어 맛본 팩컴 주변 맛집들을 소개합니다.



1. 바다 동태탕

동태살과 미나리, 콩나물이 넉넉하게 들어간 얼큰한 맛이 일품입니다. 이름 그대로 바다의 맛이 느껴진다고 할까요? 특히나 해장에는 물론이고, 맨 마지막에 라면 사리를 넣어 한 번 더 끓여 먹으면 그게 또 별미입니다. 최근 입 소문이 났는지 갈 때마다 손님들이 북적거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격은 1인분에 6,000원입니다.



2. 덕성관

이름부터 정겨운 덕성관! 덕성관은 아마 팩컴 주변의 맛집 중, 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곳 중 하나일 겁니다. 걸어서 5분 남짓이면 도착하는 덕성관은 메인 메뉴인 짜장면(4,000원)과 짬뽕(5,000원)을 비롯해 모든 메뉴들이 골고루 맛있기로 평평이 나있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불짜장이 기가 막히다고 하네요. 또, 여름 특선 메뉴였던 콩국수도 제법 홀륭하다고 합니다. 아쉽지만 콩국수는 여름 특선 메뉴라서 지금은 맛볼 수가 없어 내년을 기약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신 추운 겨울날에는 진한 짬뽕 국물 어떠까요?



3. 군포식당

아무래도 날씨가 춥다 보니 요새는 외식을 할 때 제일 먼저 뜨끈한 국물이 생각 납니다. 이 곳 군포식당은 생긴 지가 벌써 50년이 넘어간다고 해요. 그 50여 년의 시간과 내공이 켜켜이 쌓여서 결국에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설렁탕의 일인자가 되었나 봅니다. 대표 메뉴인 한우양지 설렁탕은 한 그릇에 8,000원으로, 여타 흔한 설렁탕과 달리 비교적 맑은 국물에 밥이 말아져 나옵니다. 잘 익은 김치, 깍두기와 함께 호로록 먹다 보면 어느새 한 그릇을 깨끗이 비우게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군포식당은 군포역 근처에 위치해 있어서 팩컴과 거리가 꽤 된다는 것! 점심 식사로 후딱 다녀오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도 한 번쯤 방문하셔서 50년 전통의 설렁탕을 맛보시길 추천해 드려요! **P 이연지**

새해를 시작하기에 완벽한 그 곳, 통영 연화도

2016년 붉은 원숭이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해돋이 명소를 찾고 계신가요?

저는 아름다운 해돋이 명소도 좋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통영에서

조용히 새해를 맞이하고 싶어 그 곳으로 향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름다운 한려수도, 푸르른 바다 위에서 해돋이를 맞이 하는 건 어떨까요.



새해를 맞이하여 선택한 여행지는 통영 연화도이다. 아름다운 한려수도의 섬과 바다를 이미 여러 차례 방문하였지만, 떠나면 떠날 수록 좋은 곳, 통영으로 향했다.

어둑한 새벽 5시경, 여객선 터미널 앞 일렬로 자리잡고 있는 충무김밥 집을 제외하고는 모든 상점들이 잠들어 있다. 그 모습이 순간 칠흑 같은 밤 환한 빛을 비추며 떠있는 오징어 배 같은 느낌이 들었다. 추운 새벽 뜨끈한 된장 국물과 김밥으로 속을 채우니, 든든한

속 때문인지 추위가 느껴지지 않았다. 모든 준비(초콜릿과 커피, 맥주 구매^^)를 마치고, 첫 배에 몸을 실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아 깊은 바다를 가르며 여객선은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연화도로 향해 출항했다. 여객선은 연화도를 들려 육지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깜빡 잠들면 지나칠 수 있으니, 방송이 나오면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 떠난 지 20 분 정도 흐르니 주위가 환해지면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떠오르는 해 주변이 온통 벌겋게 물들어 푸른 바다 색이





노을 빛으로 반짝반짝 빛이 났다. 바다와 함께 여객선 곳곳을 밝게 물들인 해를 바라보며 새해의 소망과 건강을 빌었다.

연화도는 섬의 형상이 바다 가운데 한 송이 연꽃처럼 생겨서 연화도라 이름 지어졌다는 설이 있다. 연화도를 둘러보는 코스는 2개 코스로 나뉘어져 있지만 3시간 정도면 걸어서 볼 수 있을 정도로 자그맣고 아담하여 코스를 정해서 구경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선착장에 내려 연화봉으로 발길을 내디뎠다. 연화봉은 해발 215m로 부담 없이 등산하기에 좋고, 정상에 오르면 아름다운 연화도와 바다가 어우러진 멋진 풍광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좋다.



통영은 용머리 바위와 출렁다리로 유명한데, 연화봉에서 하산 하는 길에 이름처럼 진짜 출렁출렁 거리는 출렁다리를 만났다. 바위와 바위 사이, 아찔한 높이에 놓인 다리는 무섭기도 했지만 건너는 동안 발끝이 찌릿찌릿하여 롤러코스터를 탄 느낌을 받아 재미있었다. 출렁다리는 인기리에 방영된 '연애의 발견'이라는 드라마 촬영 장소로도 알려져 있다. 연화도의 또 하나의 자랑거리, 용머리 바위는 통영 8경 중 하나라는 명성에 걸맞게 한려수도의 비경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연화도 용머리바위는 용이 대양을 향해 헤엄쳐나가는 형상이라 그렇게 이름 지어졌다 한다.

연화도는 쉬엄쉬엄 걸으며 한 바퀴 돌아보기 좋은 섬이다. 북적북적한 해돋이 명소를 벗어나 천천히 풍광을 감상하며 지난 한 해의 정리와 새로운 2016년을 차분히 계획 하기에 좋은 곳이니 한번 떠나보길 추천한다. 주선영

연화도 여행 팁!!

1.연화도 코스

1)여객선터미널~연화봉~보덕암~출렁다리~용머리~여객선터미널까지 돌아오는 A코스(3시간 소요)

2)여객선터미널~연화사~5층석탑~보덕암~출렁다리~용머리해안~여객선터미널을잇는 B코스(2시간 소요)

- B코스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차량운행이 가능하다. 연화도 행 배는 차량선적이 가능.

2.여객선 시간

1월 5회(06:30, 09:30, 11:00, 13:00, 15:00) 통영 여객선 터미널에서 출항한다. 단, 날씨에 따라 배 시간이 변동되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확인은 필수이다.

독서평

스물아홉 생일, 1년 후 죽기로 결심했다



이 책은 변변한 직장도 없고, 애인에게는 버림받았으며, 못생긴 데다 73킬로그램이 넘는 외톨이였던 여자가 29살 생일에 자살을 결심하면서 시작된다. 그녀는 1년 뒤 생일, 라스베이거스에서 최고로 멋진 순간을 맞이하며 자살할 계획을 세웠고, 남은 삶을 카운트하며 라스베이거스에서 보낼 화려한 날들을 위해 이전과는 다른 적극적인 모습으로 치열하게 삶을 살아간다. 그리고 1년 뒤 생일, 라스베이거스에 가는 목표를 이룬 그녀는 자신의 삶을 충분히 즐기고 자신을 사랑하는 여자로 변해있었다.

사실 이 책의 목차에는 ‘하고 싶은 게 없다’는 죄, 세상은 널 돌봐줄 의무가 없다. 등 자기계발서에서 자주 보던 말들이 많이 쓰여 있다. 뻔한 자기계발서의 내용을 재밌는 스토리로 잘 풀어냈다는 생각에 책을 읽는 내내 감탄했다. 그런데 다 읽고 보니 이 책을 쓴 작가와 주인공의 이름이 똑같았다. 그냥 지나쳤던 작가 설명부분을 보니 이 책은 소설이 아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자전적 에세이였다. 상상으로 만들어진 소설 속 주인공이 아니라 실제 나와 같은 시간을 살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였다. 한 사람이 1년이라는 시간동안 그렇게 많은 것을 경험하고 변할 수 있다는 것 이 놀라웠다.

솔직히 이 책의 주인공이 다른 성공에세이의 주인공들처럼 사회적, 경제적으로 크게 성공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삶을 즐기며 주체적으로 사는 방법을 깨달았다. 그저 흘러가는 시간을 따라 되는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한대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살아가기란 정말 힘든 일이다. 그녀는 누구나 알고 있지만 실천하기 힘든 진리를 몸소 실천하고 배웠다.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것과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의 차이’, 이것은 이루고 싶은 뚜렷한 목표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세우는 계획을 실천하는데 있었다. 30살의 마지막 생일만은 화려하게 맞이하고 싶었던 주인공. 1년 뒤 생일, 미국 라스베이거스를 실컷 즐기고 죽자는 슬프지만 뚜렷한 목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시간을 온전히 투자하고 성실히 살았던 1년의 시간. 결국 그녀는 1년 동안 모은 돈으로 라스베이거스에 입성했고 드디어 다가온 30살 생일을 맞았지만 그녀는 죽지 않았다. 그녀는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자신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계속 살기로 결정했다. 30살 이후의 삶이 자신에게 주는 생일선물인 셈이었다. 그녀는 이제 또 다른 목표를 세우고 그 것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남은 생을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그녀와 같은 시간을 살고 있는 나도, 내가 세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살아갈 생각이다.

· **P**박효정

겨울 축제 소개

- 뜨끈한 전기장판 위에서 두툼한 솜 이불을 덮고,
손톱 끝이 노래지도록 굴을 깨먹는 것이 최고 행복인 겨울이 왔습니다.
다만 이 따뜻함이 질릴 때쯤, 좀 추운 곳으로 나가보는 건 어떨까요?
겨울에만 만나볼 수 있는 4가지 축제를 소개합니다!

1. 칠갑산 얼음분수축제



* 일시 : 2015. 12. 24 ~ 2016. 2. 14
 * 장소 : 충남 청양군 알프스 마을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천장호길 175-11)
 * 요금 : 대인 5,000원, 소인 3,000원
 * 문의전화 : 041-942-0797~8

[볼거리]

얼음분수 50여점, 얼음 동굴, 포토존, 소원 터널, 야간개장, 비료포대 썰매, 얼음조각과 눈조각

[놀거리]

눈썰매장 6종, 얼음썰매장2종, 얼음봄슬레이장 2종

2. 일산 한옥마을 정와 빛축제 2015



* 일시 : 2015. 10. 24 ~ 2016. 02. 29
 * 장소 : 일산 한옥마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 395-9번지)
 * 문의전화 : 1644-3608

[볼거리]

한옥을 중심으로한 LED 조명과 경관조명 1,000만개, 사물놀이, 시집 가는날, 제기차기 등 놀이마당, 제재소 관람

[즐길거리]

민속놀이 체험, 천연비누 만들기, 전각 만들기, 캘리그라피, 한지공예

3. 2016 연천 구석기 겨울여행



* 일시 : 2016. 1. 2 ~ 1. 24
 * 장소 : 연천 전곡리 유적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515번지)
 * 요금 : 3000~10,000원
 * 문의전화 : 031-839-2561~3

[볼거리 및 즐길거리]

-빙하시대 선사체험(빙하시대 의상체험, 전곡리안 불피우기, 옷만들기, 구석기 바비큐)
 -겨울 놀이터 (이글루, 얼음 미끄럼틀, 얼음썰매, 연날리기, 부메랑, 환상의 눈조각 및 눈동산)

4. 겨울 빛축제 : 아침고요수목원

* 일시 : 2015. 12. 4 ~ 2016. 3. 13
 * 장소 : 경기도 가평군 상면 아침고요수목원 (경기도 가평군 상면 수목원로 432)
 * 문의전화 : 1544-6703
 * 점등시간 : 일몰 10분전 (대략 오후 5시 내외)
 * 폐장시간 : 저녁9시
 (단, 토요일은 저녁 11시까지 연장)

[관련 행사 및 이벤트]

1. 오색별빛 메인 이벤트
 <사랑의 별빛을 채우다>

- 장소 : 시가 있는 산책로

- 참여방법 : 누구나 무료참여
 하트에 소원지 매달아 채우기

2. 신년 이벤트

<타임캡슐 : 소망의 별빛을 모으다>

- 장소 : 시가 있는 산책로
 - 기간 : 12월 28일 ~ 1월 9일 (10회)
 - 참여방법 : 무료
 매회 선착순 2016년을 맞아 16명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의 시인, 윤동주 문학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3-100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의 시인 윤동주!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그의 시를 들어보지 않은 이가 없을 것이다.
학창 시절 서시 한번 읊어 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는 너무 친숙한 시인 윤동주,
이 작가의 일대기를 엿볼 수 있는 이곳,
윤동주 문학관을 소개한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와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시가 참 꾸밈없고 맑고 순수하다. 이 윤동주 문학관은 이처럼 티없이 맑은 시인 본인과 너무 잘 어울리는 건축물이다. 또한 이 문학관은 2014년 서울시 건축상 대상에 선정되는 등 뛰어난 건축 미로 인정받고 있다. 인왕산 자락에 버려져 있던 청운수도 가압장과 물탱크를 개조하여 만든 건물이라 한다.

세상과 타협하면서 비겁해지는 우리 영혼에 아름다운 자극을 준다는 점에서 윤동주 문학관은 우리 영혼의 가압장이라고 소개할 수 있다.

※가압장: 물에 압력을 주어 빠르고 힘있게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를 설치 한 곳

그의 시에는 어려운 한자어도, 화려한 미사어구도 없다. 담담하고 수수하게, 물 흐르듯 편하게 흘려가는 그 느낌이 좋다.

매주 월요일은 정기휴무이니 방문할 때 참고하자. 개방시간은 오전10시부터 저녁 6시까지로, 입장료는 무료이다.

제1전시실인 ‘시인채’는 사진 촬영이 불가하다. 시인의 일상을 볼 수 있는 소중한 유물들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2전시실은 ‘열린우물’이다. 실외이며, 다른 곳

으로 향하는 통로이기도 하다. 이 전시실은 그의 시 <자화상>에 등장하는 우물에서 모티브를 얻어 명명하였다.

제3전시실인 ‘닫힌우물’은 깜깜한 방이다. 시인의 일생과 시 세계를 담은 영상물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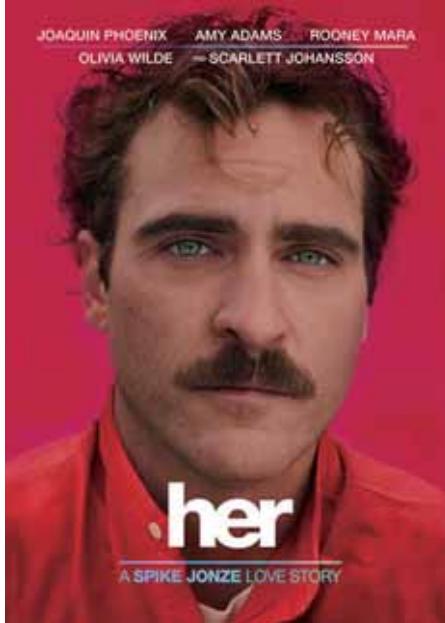
시인 윤동주는 광복을 앞둔 1945년 2월 16일 스물일곱 젊은 나이에 옥사에서 죽음을 맞이하였다. 그는 전시체제 중에도 일제 식민지배에 대항하여 조선어로 시를 썼다.

하지만 그로 인해 결국 볼온한 사상을 전파하며 사상범으로 몰려 후쿠오카 형무소에 수감되었고, 옥사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이 싯구안에 담겨 있는대로 그는 그렇게 목숨을 바쳐가며 양심을 지켰고 조국을 지켰다. 그래서 지금 그는 우리들 맘속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늘이 되었고 별이 되었고 바람이 되었고, 시가 되었다.

각박한 현대를 살면서 좀 더 편하게 살아가려고 얇팍하게 머리 굴리며 하루 하루를 보낸다는 덧 없는 생각이 나는 어느 하루, 윤동주 문학관에 가 볼것을 추천한다. 황철원





her

내 별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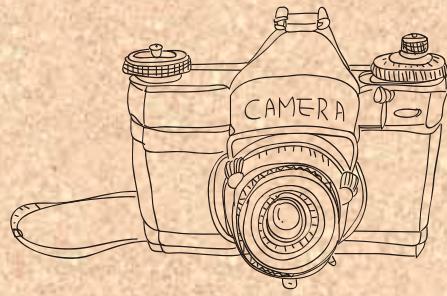
영화 속 주인공은 다른 사람들의 편지를 대신 써주는 대필 작가로, 아내와 별거 중이다. 타인의 마음을 전해주는 일을 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은 너무 외롭고 공허한 삶을 살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는 인공 지능 운영체제인 '사만다'를 만나게 된다. 자신의 말에 귀 기울이고, 이해해주는 '사만다'로 인해 조금씩 행복을 되찾기 시작한 주인공은 점점 그녀에게 사랑을 느끼게 된다.

영화를 보다보니 영화 속 세상이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머지않은 우리의 미래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지금도 사람들은 다른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도 스마트폰을 손에 놓지 않는 경우가 많다. 나도 항상 핸드폰을 손에 들고 다닌다. 지금도 이런 실정인데 그런 스마트폰에 나를 이해해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인격을 가진 프로그램이 들어있다면 아마 영화 속 사람들처럼 다들 귀에 이어폰을 꽂고 같은 공간에 있지만 사람이 아닌 운영체제와 대화하는 모습이 현실에서도 가능해질 것 같다.

하지만 이런 미래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솔직히 지금도 면대면이 아닌 스마트폰을 통한 소통을 더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다양한 SNS를

통해 자신의 일상을 공개하고 공유하지만 실질적으로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소홀한 경우를 내 주변에서도 종종 볼 수 있다. 이런 소통은 결코 사람들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과학의 발달로 사람들은 편리해지고 많은 콘텐츠를 공유하며 즐길 수 있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서만 느끼고 배울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존재한다. 이건 기계를 통해서가 아닌 오직 사람에게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사실은 영화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아무리 운영체제와 사랑을 하고 그게 진심일지라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난 영화를 보는 내내 남자주인공이 더 이상 운영체제가 아닌 실체가 있는 진짜 사람과 사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충분히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그가 사람을 밀어내지만 않는다면 말이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사람에게 치유 받는다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영화는 내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었다. 미래의 기술로 자주 언급되는 증강현실과 미래의 여러 매체들을 영화 속에서 찾아보는 재미도 쓸쓸했다. 특히 손편지를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고 그 손편지 마저도 음성을 컴퓨터로 옮겨 출력하는 슬프고 안타까운 미래의 이야기를 예쁜 영상들과 배경들, 음악들로 잘 담아내 영화에 더 몰입하며 볼 수 있었다. 충분히 두고 볼 만한 소장가치가 있는 영화라고 생각한다. **P 박효정**



찰떡소리

재미있고 기억에 남는 사진을 보내 주세요.

E-mail : semii@gopacom.com





PACOM NEWS

2015년 결산 및 2016년 사업계획 보고회



지난 2015년 12월 19일, 팩컴그룹 2015년 결산 및 2016년 사업계획 보고회가 4층 대회의실에서 김경수 대표이사와 각 부서 대리급 이상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회의는 예년과는 달리 회사에서 오전 9시부터 시작하여 열띤 토의와 발표로 저녁 10시에 마무리 되었다. 이날 점심과 저녁에는 특식을 즐길 수 있었는데, 보고회 참석 임직원과 더불어 당일 현장 근무 직원도 함께하였다.

일터혁신 통합진단 컨설팅 결과 보고회



지난 11월 9일, 지난 6개월 동안 노사발전재단의 주관으로 시행한 <팩컴AAP의 일터혁신> 통합진단 결과 보고회가 있었다. 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이 보고회는 진단을 주관한 바른인사노무법인이 김경수 대표이사, 최

숙 대표이사와 관련 임원진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최종적인 컨설팅 결과는 ‘일터의 근로관련 개선 사항’, ‘직원들과의 면담 결과’ 등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입사를 축하 합니다



지난 12월 1일, 북메이크의 김은영 사원이 팩컴의 새 가족이 되었다. 입사를 축하하며, 김은영 사원이 보람찬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이끌어 주도록 하자.

직원 및 자녀 결혼식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31일), 일요일(11월 1일)은 팩컴의 직원 및 직원 자녀의 결혼식 3 건이 있었다. 이날 기자는 취재를 위해 정신 없이 전남 광주, 서울 대림, 안양 평촌을 오갈 수밖에 없었다.

먼저 늦깎이 신랑인 제본 강영일 과장이 10월 31일, 전남 광주 상무리츠컨벤션웨딩홀에서 신부 주은영양과 화촉을 올렸다. 이들은 고등학교 동창으로, 연인 사이로 발전한 이후엔 군포와 광주를 오가며 틈틈이 데이트를 해왔다고 한다. 이날 직원들은 아침 6시에 신랑측에서 준비한 관광버스를 타고, 품 안



엔 축하 메시지를 가득 담고 광주로 출발하였다. 주례사님의 말씀대로 언제나 행복한 부부가 되길 기원한다.



11월 1일(일)에는 윤전팀의 새신랑 이준 사원이 강춘단양을 맞이하여 서울 대림 정현탑 웨딩홀에서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다. 본 식은 양가 부모님과 직원들의 축복 속에 진행되었으며, 특히 이준 사원의 제2의 고향 한국에서 올리는 결혼식인 만큼 아주 특별한 축복이 가득했다.



같은 날인 11월 1일(일), 오후 2시 30분에는 제본팀 김순복님의 차남 광복군의 결혼식이 있었다. 물론 기자는 이 식에도 쏜살같이 달려갔다. 이 결혼식은 신세대 결혼식이었다. 요즘 세대에 맞게 변형된 결혼식으로, 주례사가 없이 진행되었다. 신랑이 결혼식 준비하느라 살이 쭉 빠졌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았다. 신랑의 동영상과 신랑, 신부가 함께하는 결혼 서약, 그리고 친구의 랩 쟁으로 양가 부모님과 함께한 신세대 결혼식을 끝으로, 기자의 1박 2일간의 결혼식 순회는 막을 내렸다.

P 이원성

연탄 한 장

안도현

또 다른 말도 많고 많지만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것

방구들 선득선득해지는 날부터 이듬해 봄까지
조선팔도 거리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연탄차가 부릉부릉
힘쓰며 언덕길 오르는 거라네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연탄은, 일단 제 몸에 불이 옮겨 붙었다 하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매일 따스한 밥과 국물 퍼먹으면서도 몰랐네
온 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 새로 쓸쓸하게 넘는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하였네

생각하면
삶이란
나를 산산이 으깨는 일
누내려 세상이 미끄러운 어느 이른 아침에
나 아닌 그 누가 마음 놓고 걸어갈
그 길을 만들 줄도 몰랐었네, 나는

당신이 상상하는 모든 것들은
기록되어져야 합니다.

책 한 권도 소중히 만들어 드립니다!

Book^make

휴가 때 여행 다녀온 기념으로 사진집을 만들어 볼까, 책장 한켠에 간직해온
내 소설을 책으로 만들어 볼까 이제껏 고민하셨나요? 이제는 실천하세요!

북메이크가 당신이 원하는 책을 만들어 드립니다!
머릿 속에만 간직해 온 추억을 책으로 만들어 기록을 남기세요^^

북메이크는 “대한민국 1위 인쇄 수출 기업” 팩컴의 소량 인쇄 제작 서비스 브랜드로,
2008년부터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저자가 되는 그날까지 책 1권도 소중히 만들어 드립니다”라는
서비스 가치를 실현하고자 5년여 동안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팩컴코리아 www.gopacom.com | 북메이크 www.bookmake.co.kr | 문의 : 1577-3669